

“고국 베트남에 ‘친절한 한국’ 알릴 겁니다”

日 지성인의 한·일 과거사 인식

도립도서관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 등 번역서 출판

전남대 의학과 흥한씨 ‘제1회 외국인유학생스피치대회’ 대상

“한-베트남 융화 위한 촉매제 역할 하고파”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앞으로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거예요.”

지난 3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제1회 외국인 유학생스피치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전남대 의학과 분자세포융합과정 흥한(Hong Hanh·여·25)씨는 대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떨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지원협회가 주최하고 글로벌피스재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베트남 출신인 흥씨를 비롯해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광주·전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20명이 참가해서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과 광주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한국과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중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베트남 해방도시 아창(nha trang)출신으로 국립호지민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한 흥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 왔다. 그녀는 도착 당시 기어를 바탕으로 ‘한국에 와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했다. 그녀가 전한 한국의 첫 번째 모습은 ‘차가움’이었다.

“베트남은 일 년 내내 포근한데 한국에 와서 영하의 날씨를 겪으니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겨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낮선 나라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몰았는데,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영어를 못한다면서 차갑게 피하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 본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우리말과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그녀는 ‘차가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미안한 듯 통역을 도와주던 친구를 향해 방긋 미소지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을 강조했다. 바로 ‘친절함’이었다. 한국의 친절함을 알게 된 것은 여대생이 관심을 갖는 화장 덕분이었다. 사실 그녀는 외모에 한창 관심을 가질 나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을 제외하면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외모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친구들 덕분에 화장하는 기술이 좋아졌다고 밝게 웃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제 생각 달라지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광주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영어가 서툴다



는 생각 때문에 섣뭇 이야기를 걸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가까워지면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아이돌 가수나, 한국 드라마 이외에 이런 친절한 한국인의 모습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한류문화로만 접하던 한국을 그녀가 처음 접한 건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다. 지난 2012년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그녀는 베트남에서 자원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 커다란 호감을 갖게 됐다. 특히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흥씨에게 타국에 와서까지 타인을 돕는 한국학생들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그곳에 직접

가서 한국과 한국인을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진 그녀는 지난 일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한층 가까워지는데 자신만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도 아이돌 그룹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가수들은 멤버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요. 서로 다른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 굉장한 매력을 발산하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국과 베트남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게 서로 잘 융화될 수 있다면 한국의 아이돌 그룹처럼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을 좀 더 공부해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글·사진=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전남도립도서관(관장 양재승)은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일본 나라시대 명예교수가 기증한 도서 가운데 한·일 역사관계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저서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 등 2권을 최근 번역 출판했다.

나카츠카 교수는 올바른 동아시아 근대사 정립을 위해 학문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평생에 걸쳐 수집한 1만2500여권의 전남도립도서관에 기증한 바 있다.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로 알려진 나카츠카 교수는 1960년대부터 근대 일본에 있어 조선문제의 중요성을 자각해 청일 전쟁을 비롯한 근대 한·일 관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매년 일본 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격전지를 방문하며 역사왜곡을 바로잡는데 매진해 왔으며, 최근 제7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대일본의 역사인식’에서 나카츠카 교수는 일본인이 조선 침략사를 사죄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스스로 ‘일본이 일인 전쟁’에는 잘못이 없다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임을 논증하고 있다. 현대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책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에서는 일본의 ‘국민작가’라고 불리는 시바 료타로의 대표적인 소설 ‘언덕위의 구름’에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묘사하면서 대정태가 되었던 근대 조선에 대해서는 결국 글을 쓰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그의 ‘조선관’과 ‘메이지 영관론’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비판하고 있다. /윤철석기자 chad01@

진도 출신 소설가 광의진씨 별세

배우 우현의 장모이자 조연의 모친 소설가 광의진 씨가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진도 출신 광씨는 사단법인 삼별초 역사문화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국악 오페라 ‘삼별초’ 원작과 극본을 쓰기도 했다.

단국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광씨는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 공모에 ‘굴렁쇠 굴리기’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후 1995년 진도로 귀향, 자운도방에서 집필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씨는 ‘꿈이로다 화연일세’로 한국소설문학상, ‘향따라 여백따라 가는 길’로 한국백산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부터는 사위 우현과 SBS프로그램 ‘지기아-백년손님’에 출연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SBS측은 배우 우현 장모로 출연했던 소설가 광씨의 기존 출연분을 그대로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



심적 외상을 치유하는 따뜻한 시선

광주출신 재미교포 최미자씨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펴내

미국 남가주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수필가가 책을 펴냈다. 주인공은 최미자(65)씨.

이메일을 통해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출간 소식을 전해온 최 씨는 광주 출신으로 전남여중고를 졸업했다. 이후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1975년부터 장성 황룡중학교와 광주 중앙여고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쳤다.

1987년 공군장교였던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최 씨는 샌디에고 패싱중학교 수학교사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에는 제자, 동창들과의 인연을 묶은 첫 수필집 ‘레몬향기처럼’을, 2011년에는 샌디에고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삶과 이웃의 모습을 담은 ‘샌디에고 암탉’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이번 수필집에는 한국어 수필 5편과 영어 수필 6편 등 총 11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최 씨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언어로



그러낸다. 작품들은 모국어와 생소한 영문의 하모니가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는 게 특징이다. 빛 고을에서부터 짙어지고 온 글쓰기의 열정이 이역만리 타국

에서 이민문학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문학평론가 한상렬 씨는 “최 씨의 수필은 생명의 언어로 심적 외상을 치유한다”며 “따뜻한 언어가 소외된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버림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최 씨는 2005년 현대문예와 수필시대를 통해 등단했으며 이번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는 발원문 문화재단 지원금을 받아 출판되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북부소방서 ‘오감만족 감성놀이터’서 소방교육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최근 광주유치원연합회가 주최한 ‘오감만족 감성놀이터’ 행사에서 8천여명의 참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명 ‘소소심’으로 불리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로 구성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론적인 안전교육을 넘어 가상재난안전 체험을 통해 화재 등 응급상황발생시 자율적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들은 소방안전체험차량내부에 마련된 지진체험, 119신고전화, 화재피난체험, 비상

탈출체험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응급상황에서의 안전조치 요령을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소방관들의 지도 아래 교육용으로 제작된 연기식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신미리유치원 지도교사 김미선씨는 “유아들의 소방안전교육이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유아를 배려한 눈높이 교육에 만족스러웠다”며 “소방안전 생활화 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신순례씨 장남 김동열군 신양수(前 광주일보 총무부)·박영임씨 사녀 현정양=7일(토) 오후 1시 고흥 좋은자리뷔페 061-834-5700.

▲박병오(해동할어 대표)·최은숙씨 장남 봉선군 김길성(은혜화원 대표)·노준희씨 장녀 은혜양=7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

동창회

▲송원고 동문회(회장 황명성) 열린 음악회=3일(화) 오후 7시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062-384-7447.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5일(목)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재광 경주 김씨 중친회 월례회모임=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알림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승광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모집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 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미술치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갈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부음

▲최양기씨 별세 윤형수(형산 스키로플 대표)씨 모친상 윤현석(광주일보 정치부장)·태림(하나증권 차장)씨 조모상 강현미(광주문화재단)씨 시조모상=발인 4

일(수) 광주역장례식장 3호실 062-264-4444.

▲김연남씨 별세 박재구·계영·숙희·숙자·은화씨 모친상=발인 3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차금숙씨 별세 이희승(호남대학교)·유승씨 모친상=발인 3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춘범씨 별세 상희(한솔테크닉스)·상욱(연호전자)·상월씨 부친상=발인 3

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이현종씨 별세 예준·나라·윤서씨 부친상=발인 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문병갑씨 별세 경철·장주·선복·선주씨 부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학준씨 별세 승진·승민·승해·승복씨 부친상=발인 5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101호 故 趙正堂 南(남/89세)</p> <p>子/子婦 : 조정환/이민자, 조정일/경민숙 女/婿 : 조이현/김경철 孫 : 조성현, 조성환, 조성영 • 발인 : 6월 4일 • 장 지 : 영락공원</p>	<p>102호 故 이진표 南(남/85세)</p> <p>子/子婦 : 이관영 女/婿 : 이윤정/도임준 • 발인 : 6월 4일 • 장 지 : 영락공원</p>
<p>402호 故 송영학 南(남/65세)</p> <p>子/子婦 : 송광인/김진원, 송광준 女/婿 : 송인숙/이관호 • 발인 : 6월 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p>	
<p>孝 金 浩 喪 禮 式 場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